



| CONTACT US |

영업팀 공용메일: [sales.kr@maxlogis.com](mailto:sales.kr@maxlogis.com) / 김민호 부장: [mike.kim@maxlogis.com](mailto:mike.kim@maxlogis.com) (82-10-2988-6309/070-5096-9367)  
 장명수 차장: [simon.jang@maxlogis.com](mailto:simon.jang@maxlogis.com) (82-10-4437-5175/ 070-5096-9387) / 정근재 대리: [jg.jung@maxlogis.com](mailto:jg.jung@maxlogis.com)  
 (82-10-9120-6938/ 070-5096-9886) / 김현미 대리: [sienna.kim@maxlogis.com](mailto:sienna.kim@maxlogis.com) (82-10-9924-2772/ 070-5096-9124)

**아시아**

1) 물류 동향

**\*\*동북아 지역\*\***

■ **해운동향 : 한국 컨테이너선 종합지수 ( 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 32WK**

√ 미주 상승 / 유럽 상승 / 남미 보합 / 근해 하락 - 7월과 유사 추세

단위: 종합지수(Point), 항로별(\$/FEU)

항로	32차(WK) (2023-08-14)	31차(WK) (2023-08-07)	전주대비 (증감율)
종합지수	1,390	1,377	▲ 1.0%
원양 (Main-Lane)	미주서안	1,969	1,936 ▲ 1.8%
	미주동안	2,995	2,929 ▲ 2.3%
	북유럽	1,459	1,431 ▲ 2.0%
	지중해	2,177	2,161 ▲ 0.8%
중장거리 (Non-Main Lane)	중동	1,648	1,674 ▼ 1.6%
	호주	636	624 ▲ 2.0%
	남미동안	2,784	2,813 ▼ 1.1%
	남미서안	2,306	2,265 ▲ 1.9%
	남아공	1,526	1,533 ▼ 0.5%
인트라 아시아 (Intra-Asia)	서아프리카	2,361	2,353 ▲ 0.4%
	중국	63	68 ▼ 7.4%
	일본	312	313 ▼ 0.4%
	동남아시아	354	364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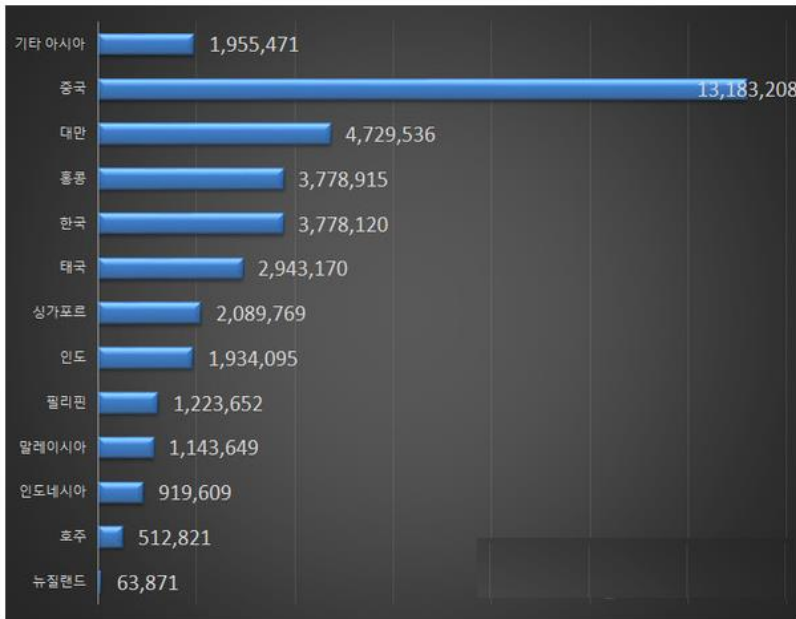
- 13개의 노선 중 7개 노선은 전주대비 상승 ▲, 6개 노선은 전주대비 하락 ▼
- (종합) 23년 8월 14일 종합지수는 전주대비 1.0% 상승한 1,390p로 집계됨.
- (근해항로)중국 운임은 63달러로 전주대비 7.4% 하락함. 일본은 전주대비 0.4% 하락한 312달러를 기록함. 동남아행 운임도 전주대비 2.8% 하락한 354달러를 기록함.

## 아시아-2

### 1) 물류 동향

#### \*\*동북아 지역\*\*

##### • 일본 포워더, 한국 수출 항공화물 24% 감소



- 지난 7월 일본 포워더들의 국제선 수출 항공화물은 6만 1,605t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
- 일본 항공 화물 협회(JAFA)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미주(TC-1)는 25% 감소, 유럽·중동·아프리카 (TC-2)도 18% 감소, 아시아·오세아니아(TC-3)는 29% 줄어든 수치로 각각 나타남

<7월 일본 포워더 국가별 수출 항공화물(단위: kg)>

-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24% 감소.

#### \*\*동남아 지역\*\*

##### • 베트남 비엠텐, 인도 코치노선 주4편 운항



- 비엠텐(VJ)이 지난 12일부터 호치민(SGN)에서 인도코치(COK)노선을 주 4편 운항에 들어감.
- 이에 따라 이 항공사는 하노이(HAN)와 호치민에서 인도 뉴델리(DEL), 뭄바이 (BOM), 아메다바드(AMD), 티루치 라발리 (TRZ) 등에 주 35편을 운항.

### 1) 물류 동향

#### \*\*동남아 지역\*\*

#### • 싱가포르 기업, 베트남 지방에 1억달러 투자유치

- 싱가포르의 sunrise material이 베트남 기업과 북부 Nam Dinh성에 1억 달러 규모의 폴리머 랩 필름 생산 프로젝트 개발 협약을 체결.
- 본 계약은 금요일 Dai Phong 인프라 개발 JSC와 체결. 본 프로젝트는 My Thuan 산업 단지에서 지어지며 4헥타르의 규모로 추정. 2024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5년 후에 완공될 예정. 공장은 15개월 후에 첫 제품을 제조할 것으로 예상.
- Nam Dinh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프로젝트가 특히 첨단 기술과 환경 친화적인 부문에서의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언급. 2004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Sunrise Material은 특히 식품 포장을 위해 첨단 고분자 랩필름을 연구, 생산 및 공급하는 데 전문적. 이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

#### • 싱가포르

- 카이로공항이 창이공항과 화물시설 개발 협력으로 단기적으로 영향력 있는 솔루션 제공 및 장기 프로그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인 라야항공(TH)이 A321 개조 화물기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
- 8월28일부터 SQ SIN-PUS 주4회로 여객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

#### • 태국, 램차방 항구내 잔여 컨테이너 운영 진행상황



- 램차방 항구에 수입기준 미달 주요 품목인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 냉동 컨테이너 포함, 약 천대의 컨테이너가 램차방 항구내에서 수입 대기중.

## 1) 물류 동향

### \*\*동남아 지역\*\*

- 이로 인해 냉동컨테이너 부족현상과 항구 혼잡이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입 입고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 세관에서는 무역 촉진 및 서비스 개선위해 정부/민간 기관과 협업하여 최우선으로 조치 중에 있음.

### • 베트남

- 해상 : 한국간 물량 감소로 선박회사 선박 공급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로 인한 스페이스 대란, 운임 또한 9월부터 상승 예상.
- 항공 : 올해 1월부터 항공화물 대폭 감소로 인하여, 항공 운임 바닥선이었으나 9월부터 의류 등 물량 증가로 인해 조금씩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 경제 동향

### \*\*동북아 지역\*\*

### • 한국기업 체감경기 18개월째 부진...의약품·섬유·건설 업황은



- 한국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18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경제의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업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2) 경제 동향

### \*\*동북아 지역\*\*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월 BSI 전망치는 96.9를 기록.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달보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인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는 의미.
- BSI 전망치는 18개월 연속 100 아래를 기록. 이는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 기록. 8월 BSI 실적치는 93.9로 나타남. 지난해 2월부터 19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돼 기업들의 실적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옴. 9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각각 98.9, 95.1으로 부진. 제조업은 지난해 4월 94.8을 나타낸 이후 18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음.

### • 日 2분기 경제성장률 1.5%... 3분기 연속 성장

- 일본의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계절조정치)이 전 분기보다 1.5% 증가. 일본 내각부는 일본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고 이같이 발표. 이런 추세가 1년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연간 환산(연율) 성장률은 6.0%.
-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음. 2분기 수출은 전 분기보다 3.2% 늘었고 수입은 4.3% 줄었음. 현지방송 NHK는 반도체 부족 문제가 누그러들면서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고 분석.

### • '물동량 18% 감소' 여객사업이 한중카페리항로 활로 될까



- 지난 12일 인천항과 평택항에 중국 여객을 실은 한중 카페리선이 나란히 입항.
- 인천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위동항운의 <뉴골든브리지5>호는 여객 118명, 평택과 중국 웨이하이를 잇는 평택일조해통훼리(옛 평택교통훼리)의 <뉴그랜드피스>호는 여객

## 2) 경제 동향

### \*\*동북아 지역\*\*

55명을 각각 태우고 이날 우리나라 여객 부두에 뱃머리를 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여객 수송 전면 중단에 들어간 지난 2020년 1월 말 이후 무려 43개월 만임.

- 한중 카페리항로의 여객 수송이 예고 없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 때문임.
- 중국 문화관광부(문화여유부)는 8월10일자로 우리나라에 적용했던 단체 여행 제한을 해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금지했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한 지 7개월 만임.
- 이달 들어 중국 정부는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73개국으로 늘리면서 우리나라도 명단에 포함시킴. 아울러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비자를 취득하려는 한국인에게 요구했던 지문 채취 절차를 사업, 여행, 친척 방문, 경유, 승무 비자에 한해 8월10일부터 연말까지 면제한다고 밝힘.
-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한중 카페리항로의 여객 운송 재개도 급물살을 탐. 인천-칭다오 평택-웨이하이 평택-엔타이 노선을 시작으로 줄줄이 여객 사업 정상화에 나서는 모양새.

### • "24시간이 모자라"...식지 않는 해외직구 열풍에 통관 대란

-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증가. 인천항, 평택항 등은 직구 물량이 증가하면서 '통관 대란'까지 벌어질 정도. 국내 외 해외직구 플랫폼·간편 결제 기업들도 협력 관계를 맺으며 직구 소비자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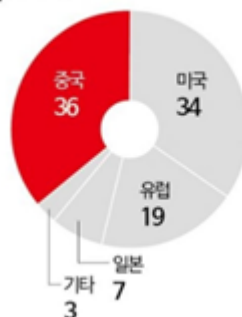
지난해 해외 직구 국가별 점유율

(단위: %, 자료: 관세청)

■ 건수 기준



■ 금액 기준



-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6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

## 2) 경제 동향

### \*\*동북아 지역\*\*

- 전체 금액의 48%(7778억 원)가 중국발 물량. 이같은 성장은 물품 구매대행이나 배송 플랫폼이 다양해져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기 더 쉬워졌기 때문.
- 해외 직구 열풍은 '통관 대란'까지 야기할 정도. 보통 하루면 충분했던 통관 대기 시간이 밀려드는 물동량으로 인해 2~3주가량으로 길어졌다는 게 물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현재 중국 등 해외에서 발송조차 못 한 물량도 7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관세청은 '통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평일 24시간 상시 통관 체계에 들어간 상태. 관세청은 인천항·경기 평택항 등의 통관 업무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필요시 야근 및 토요일 통관 지원)에서 평일 24시간 및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확대.

### • 일본산 반도체장치 - 전년도 대비 매출액 23% 감소

- 일본산 반도체장치 매출액이 20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3% 감소( 3조201억엔)할 것으로 전망.
- 감소의 이유로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이하SEAJ)에 의하며 코로나 이후 작년 22년 후반 부사상 최대 판매/매출액을 기록한 것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반도체의 주용도인 PC와 스마트폰용 반도체의 출하가 부진했기 때문.
-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22년도(3조9222억엔)에서 비해 2023년도는 4년 만에 전년도 실적이 미치지 못함. SEAJ에 따르면 24년도에는 다시 투자가 회복돼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5년도에는 10%증가한 4조3187억엔으로, 처음으로 4조엔대에 오를 전망.
- SEAJ는 24년도 이후 수요 회복의 견인차 역할로서 생성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기자동차(EV), 가상현실(VR) 단말기 등의 제품 보급을 꼽아, 고속통신 규격 '5G' 등의 확산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늘면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 경제 동향

### \*\*동북아 지역\*\*

- 305개 기업실적, 2분기에도 '작년의 반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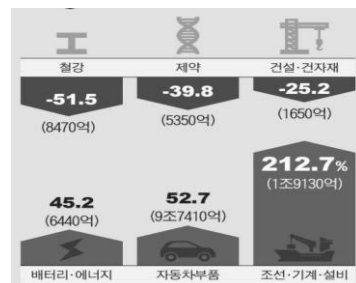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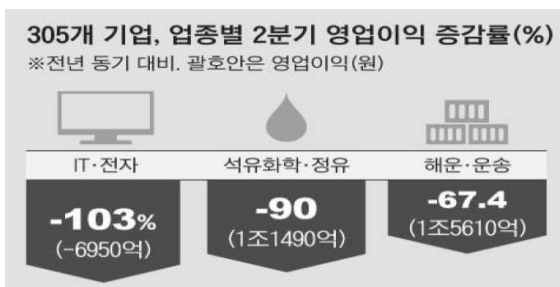
#### [국내 기업 영업이익 추이]



- 대한민국 대표기업 305곳의 실적 확인 결과, 2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하락
-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정유, 철강, 건설, 제약, 유통 등 대다수 업종이 극심한 불황중에 있음
- 중국 외 시장을 겨냥한 자동차/부품/조선/기계설비/배터리업종은 그나마 선방 중

- "차이나쇼크" 우려로 하반기 반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갈등 전개 상황에 따라 경기 가 개선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 2분기 영업이익 증감률]



### • 세계은행,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 세계은행 발표 기준, 경제성장률 2022년 8%에서 2023년 상반기는 3.7%로 둔화되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유동성완화, 글로벌경제회복 및 베트남정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 확대정책에 기반 하여 2023년 4.7%, 2024년 5.5%, 2025년 6.0%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2) 경제 동향

### \*\*동남아 지역\*\*

#### • 새로운 비자 정책으로 베트남 관광업 회복 전망 중

- 관광업체들이 15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비자 정책에 힘입어 베트남 관광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성수기 전에 시행될 우호적인 비자 정책은 베트남으로 오는 관광객의 수를 늘리고 베트남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현지 여행사들은 예상. 관광업체들은 관광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기를 희망.
- 베트남은 지난 6월 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전자 비자 유효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의 출입국 법률 개정안을 승인. 또한, 베트남의 일방적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가 및 지역의 외국인들은 현재의 제한인 15일을 초과하여 최대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됨.

#### • 싱가포르

- 9월 15~17일까지 3일간 마리나베이 서킷에서 F1 싱가포르 그랑프리 진행.
- 10월 11~12일 2일간 싱가포르 빅데이터 AI전회 개최. (전시품목: 딥러닝,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하드웨어, AI 인터랙티브 등)

#### • 태국 30대 총리 선출



- 태국은 군부 쿠데타로 총리로 선출된 제 29대 총리인 "쁘라우트 짜오차"가 물러나고, 제 30대 총리로 "세타 타위신"이 선정됨.
- 세타 타위신 총리는 11개 연립정부, 경제부 장관, 하반기 사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태국 전국민에 태국 전자화폐 10,000 (약 35만

원 지원, 지하철 20바트(약 700원), 일일 임금 600바트(약 2만원), 학사졸업자 25,000바트(약 88만원) 지원, 관광 3조 바트 회복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음.

### 2) 경제 동향

#### \*\*동남아 지역\*\*

- 특히, 일일 임금 600바트는 23년 기준 임금이 가장 높은 라영 기준 354바트의 59% 인상의 폭으로 많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비용 인상으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업장의 해외 이주/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베트남, 모든국에 전자 비자 발급 및 무비자 체류연장 8월15일부터 적용.

### 3) 지점소식

#### \*\*동남아 지역\*\*

#### • 방콕지점

- 8월 16일부로 태국 항공 수출/입 서비스 강화위해 Miss Thanutchan Adulyapichet가 입사하여 더욱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

#### • 베트남지점 공휴일 안내

- 9/1(FRI)~9/4(MON) : 독립기념일 NATIONAL INDEPENDENCE DAY
- 9/5일 업무복귀

## 1) 물류 동향

### • 싱 시리드, 중화권선사와 中-인도서안 항로 출범

- 아랍에미리트(UAE)계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사인 시리드가 중화권 선사들과 손잡고 중국과 인도 서안을 연결하는 신항로를 개척.
- 시리드는 중국 시노트란스 SITC, 대만 TS라인이 공동 운항 선사로 참여하는 극동-인도 익스프레스(FIX)를 이달 개설한다고 밝혔다. 네 선사는 신규 항로에 2400~42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공동 배선할 예정.
- 전체 기항지는 칭다오-상하이-닝보-서커우-첸나이-비샤카파트남-포트클랑-서커우-칭다오 순이다. 전 노선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총 33일로, 칭다오에서 첸나이까지 16일, 첸나이에서 칭다오까지 17일 걸림. 오는 23일 시리드의 <런젠8>호가 칭다오항에서 첫 취항. 이 선박은 첸나이는 10월13일, 비샤카파트남은 10월16일에 각각 입항할 예정.

### • 아시아나, 청두 TFU - 인천 공항 항편 개시, 9월부터 주23567, 5편운영 OZ324 A330/320

### • 충칭지역 전자상거래화물 증가

### • 4분기 대만발 항공 시장

- 운임은 항공화물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 대만 T/S 미주항 화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미주 운임은 30% 인상될 것으로 보임
- 인천 노선 : LJ,OZ,TR,BR,CI,KE,PO 등 항공사별 DAILY로 운항하며, 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 공급이 소유보다 많아 4분기에도 ICN노선은 운임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동향

### • HKIA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상반기 여객 및 화물 물동량 현황

- 상반기 홍콩 공항 1,650만 명의 승객과 118,780회의 비행 이동을 처리했으며, 이는 2022년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배와 9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200만 톤을 기록

### 2) 경제 동향

#### • 中 부동산 위기에 세계 금융 시장 '긴장'

- 중국 부동산 업계의 도미노 디폴트(부도) 위기가 연일 부각되고 최근 발표된 여러 지표들도 중국 경제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음.



-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의 앞날에도 비관적인 전망.
- 16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급락.

-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홍콩 항셱지수(-1.36%)와 일본 닛케이225지수(1.46%)도 1% 중반대 하락폭을 보임.
- 이런 시장 불안의 배경엔 중국의 위태로운 경제 상황이 존재. 우선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음.
- 중국은 지난 10년 간 전 세계 경제 성장의 40%를 담당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거대경제권인만큼, 위기가 심화되면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 美, 중국산 통조림 양철판에 122.5% 반덤핑 관세 폭탄



- 미국 상무부가 통조림 캔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국산 양철판에 1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7일 (현지 시간) 발표.
-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양철판을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2) 경제 동향

- 상무부는 올해 2월부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요구로 수입산 양철판에 대한 덤핑의혹을 조사해옴. 당초 한국,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예, 영국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반덤핑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 5개국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
-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중국, 캐나다, 독일 회사들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 수출 가격이 중국 내 가격의 절반 이하인 데다 기업들이 반덤핑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국 공산당에서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번 관세는 예비 조치이며 관세를 계속 부과할지에 대한 최종 판정은 준사법기관인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ITC)가 내릴 예정. 최종 결정은 중국의 경우 오해 12월 말에, 다른 국가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
- 통조림 캔 제조업체는 관세 부과가 통조림 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다만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환영한다고 밝힘. 미국 양철판 수입 가운데 중국은 14%를 차지하며 독일과 캐나다는 합쳐서 30%를 점유.

####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벽계원(Country Garden) 디폴트 우려

- 최근 중국의 대형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Private Owned Enterprises; 이하 POE) '벽계원' (Country Garden; 이하 CG)이 두 건의 달러채 이자를 미지급하며 유동성 문제가 부각됨.
- 시장에서는 금번 사태가 CG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다만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State Owned Enterprises; 이하 SOE)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
- 향후 시나리오에는 ① 역내, 역외 채무 이행에 모두 실패하는 등 완전한 디폴트 선언 ② 역내 부채 상황을 우선시하여 역외 부채에 한해서 디폴트 선언 ③ 유예기간 내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 이행 등의 시나리오가 존재.

### 2) 경제 동향

#### •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3년 초 중국은 경제안보와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 및 수출통제 조치들을 발표하는바, 추가 조치에 대비 및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중국은 4월 「반간첩법」 개정 및 6월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뒤 7월부터 시행 중이며, 7월 3일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8월 시행)를 발표하는 등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추진 중.
-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조치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경제적 대응조치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미·중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국은 기밀과 경제안보에 관한 간첩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외정책 방침과 목표, 대중국 주권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갈륨·게르마늄에 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
- 먼저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밀정보에서 더 나아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데이터 및 자료까지 간첩행위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기관의 조사처분 권한 및 처벌을 강화, 간첩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
- 「대외관계법」 제정을 통해서도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을 대외관계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서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하고, 대중국 주권·안보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중.

#### • 홍콩 "일본여행 기념품으로 수산물 구입 피하라"

- 23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이날 RTHK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 여행에서 귀국할 때 수입 통제 대상이 되는 일본 지역의 수산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밝힘. 체 장관은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기념품은 반입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 홍콩 정부는 전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24일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도(都).현(縣)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 2) 경제 동향

- 이에 따라 후쿠시마, 도쿄,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등 일본 10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 생물과 냉동·냉장 제품은 물론이고 소금, 건어물, 해초 등 모든 종류의 수산물이 수입 금지 대상.
-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면 서 이는 식품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해양 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오염과 파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
- 홍콩은 중국에 이어 일본 농수산물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 지난해 일본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755억엔(약 7천억원)어치의 수산물을 홍콩에 수출. 또 홍콩이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도 일본으로 나타남.

#### • 대만



- 대만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1%에서 1.66%로 낮춘 국내 총체적 경제전망 및 경기동향 조사보고서를 발표.
- 대만경제원은 "2023년 중국 코로나 19 이후 대만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좋지 않고 미국과 유럽의 하반기 경제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아 '2023

년 경기 내외외랭'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제조업체 공급망 재고 조정 속도, 미중 과학 기술 전쟁의 가열, 핵심 팹창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 이상 현상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최근 국제 에너지·유가가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텀블러 수치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 각국에 이상 기후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탈퇴가 하반기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됨.

### 3) 경제 동향

#### • 홍콩발 베트남 (하이퐁/호치민) 해상 콘솔서비스 준비 中

## 1) 물류동향



	'23.8.18.	'23.8.11.	증감
SCFI	1,031	1,043.54	▼ 12.54
美서안	2,003	2,017	▼ 14
美동안	3,110	3,071	▲ 39
유럽	852	926	▼ 74
지중해	1,500	1,507	▼ 7
동남아	144	140	▲ 4
중동	908	853	▲ 55
호주	453	435	▲ 18
남미	2,285	2,444	▼ 159
日서안	313	319	▼ 6
日동안	318	332	▼ 14
한국	157	157	-
동서Africa	2,501	2,533	▼ 32
남Africa	1,328	1,379	▼ 51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 • 유럽항로, 3주 연속 하락

- 유럽항로는 초대형선 인도 증가로 6~7월 전체 선복의 10.8% 수준의 임시 결항 발생, 성수기 물동량 회복이 동반되며 일시 반등했던 유럽 운임은 금주 들어 낙폭 확대
- 8월에도 24,000TEU급 선박 2척 등 신조 인도가 이어짐에 따라 공급 압박에 대응한 선사들의 선복 조절 지속 예상.
- 8월 북유럽 4%, 지중해 5.5%의 임시 결항이 계획 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공급량 조절은 확대될 전망

### • '포워딩 부진' 獨 DHL, 2분기 영업이익 2.4조...27% ↓

- 독일 특송물류업체인 DHL의 실적 감소세가 2분기에도 이어짐. DHL은 2분기(4~6월) 세 달 동안 영업이익(EBIT),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각각 27% 33% 감소.
- 매출액은 지난해 240억 2900만 유로에서 16% 감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0%에서 2%포인트 하락. 독일 물류기업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의 배경을 포워딩(국제 물류주선) 사업 침체에서 찾음.



### 1) 물류동향

- 같은 기간 포워딩 사업은 41% 감소한 매출액과 47% 감소한 영업이익을 냄. 외형과 이익이 나란히 반 토막 나는 부진을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9%에서 올해 8%로 하락.
- 해상 물동량은 지난해 87만6000TEU에서 올해 79만6000TEU로 9%, 항공 물동량은 지난해 47만 7000t에서 올해 41만5000만t으로 13% 각각 감소.
- 주력사업인 특송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 18%씩 감소. 회사 측은 시간 지정 국제특송(TDI) 수요가 4% 감소한 데다 외화환산손실과 유류할증료 인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특송 사업 부진의 배경을 진단.
- 수송실적은 해상물동량 152만5000TEU, 항공물동량 항공이 82만9000t으로 각각 7%, 16% 감소

### •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운송 제동...5위 사용국 韓 피해 클 듯

- 세계 무역량의 약 3%를 차지하는 파나마 운하의 공급망에 제동이 걸림
- 파나마 운하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발생해 공급망의 안정적 흐름에 큰 차질은 물론 비용 상승을 촉발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가뭄으로 운하의 수심이 낮아져 통행량이 감소하고 있음
- 일일 교통량이 수량이 풍부한 시기와 비교해 대략 6~8척이 줄어, 200여 척이 운항하지 못하고 대기 중
- 이로 인해 교통량 감소는 물론 선박 대기 시간이 길어져 비용도 상승하고 교통 체증도 유발하고 있음
- 하지만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또 다른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가 될 우려를 낳고 있음

### **\*\*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 \*\***

-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세계 경제 번영기에 증가하고, 불황기에 감소하는 전 세계 무역의 바로미터
- IMF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량의 약 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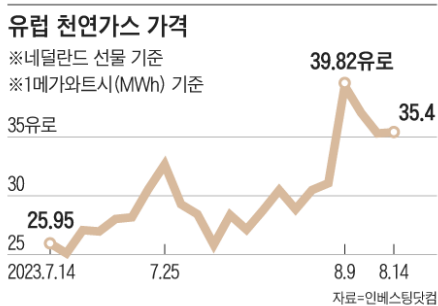
## 1) 물류동향

- 파나마 운하의 일일 수용량은 약 38~40척으로 알려져 있음
- 용량은 선박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운하의 유지 보수 작업 중에는 감소함
- 주로 사용하는 선박들은 컨테이너 선박, 원유 제품, 곡물, 석탄 운송선
-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량은 무역의 증가로 계속 증가해 왔음

## 2) 경제동향

### • 다시 가격 폭등한 유럽 천연가스

- 올여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유·석탄과 함께 중요한 화석연료로 꼽히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에 30% 가까이 폭등하는 일도 생기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 지난 8월 9일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39.82 유로로 거래를 마침.
- 전날보다 28% 정도 오른 가격이며, 지난달 7월 28일과 비교하면 54%나 높음.

- 이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호주 LNG(액화천연가스) 생산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
- 파업이 현실화되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자극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유럽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 伊 정부, 항공료 상한선 책정하자 항공사들 반발

- 이탈리아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내선 항공료에 대해 가격 인상 억제에 나서자 저가 항공사들이 거세게 반발중.

### 2) 경제동향

-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과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내각회의에서 본토와 시칠리아섬, 사르데냐섬 간 국내선 항공료를 평균 가격의 20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
-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두 섬으로 가는 항공료가 치솟자 상한을 설정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건 것. 다만 평균 가격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안사 통신은 발표.
-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저가 항공사들은 이탈리아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
- 라이언에어는 여름 성수기 동안 이탈리아 본토와 두 섬을 매주 500회 이상 운항. 라이언 에어 뿐만 아니라 루프트한자, 이지젯,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 등 이탈리아에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들도 이탈리아 정부의 결정이 유럽연합(EU)의 자유 시장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
- 항공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아돌포 우르소 비즈니스 및 이탈리아산 담당 장관은 지난 9일 이탈리아 뉴스채널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으로 개입했다"며 시장에서 투기꾼들이 마음대로 이득을 취하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고 언급.
- 국내선 항공료 상한선 도입 법안은 60일 안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시행.

#### • EU, 10월부터 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탄소세 시행 첫발

- 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규정 확정...2024년말까지는 韓 등 제3국 계산방식 인정
-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됨
  - 한국 기업들도 일단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 K-ETS에 근거해 보고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됨
  - 본격 관세가 부과되는 2026년부터는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2) 경제동향

#### 2) 6월 유로존 무역수지 33.5조원 흑자..."중려서 수입 급감"

- 유로존 20개국의 2023년 6월 무역수지는 230억 유로(약 33조5312억원 계절조정 전)
- 유로존 6월 수출은 계절조정 전에 작년 같은 달보다 0.3% 증가한 반면 수입 경우 17.7% 줄었음
- 계절조정 후 무역수지는 125억 유로 흑자로 집계됐음
- 5월은 2억 유로 흑자, 4월에는 79억 유로 적자였음
- 1~6월 상반기 유로존 수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한 반면 수입은 7.3% 감소했음
- 이에 따라 상반기 무역수지는 53억 유로 흑자를 보았음
- 작년 상반기는 1518억 유로 적자였음